

부록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

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『서울시의 소셜벤처와 정책과제』

목적

- 해당분야의 전문가 발표와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거쳐 서울의 민생현장 의견을 수렴하고,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

일시 및 장소

- 일시: 2019년 2월 21일 15시
- 장소: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지하1층 세미나룸(공감)

발표주제 및 토론자

- ‘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진단과 해외 정책 사례’(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)
- ‘소셜벤처기업 판별가이드 및 범용평가 모형’(오창호 한신대학교 교수)
- 토론자: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, 노순호 소셜벤처 동구발 대표, 신창호 서울시립대 교수,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등



[부록 그림 1] 소셜벤처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

발표 1: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 진단과 해외 정책 사례

○ 왜 소셜벤처인가

- 세계는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육성에 주력
- 사회적기업은 빈곤, 환경 등 사회문제를 시장경제의 모델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사회포용적 일자리를 창출
- 특히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보다 지속가능성 확보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유리
- 사회적경제의 실현과 혁신성장을 위해 국내 소셜벤처 육성이 시급

○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

- 국내 사회적기업은 2016년 말 기준 1,713개이지만,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이 69.7%이며 벤처기업은 81개에 불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 부족
- 소셜벤처의 창업보육과 사업화 지원, 투자와 혁신 중개 등을 전담하는 전문 중개지원기관은 대기업,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여 약 20개에 불과

○ 소셜벤처 생태계의 문제점

- 소셜벤처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적기업가 양성이 저조하며, 소셜벤처의 자금조달원인 임팩트투자 시장이 아직까지 미성숙
- 임팩트투자 부족 등으로 소셜벤처, 사회적 목적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도 활성화되지 않아 자금접근성 전반을 제약
- 정부의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기반도 부족하고 특화 지원도 미흡

○ 해외 정책 동향

- 영국은 정책기반 구축,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, 중개지원기관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핵심으로 소셜벤처를 집중 육성
- 미국은 소셜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협력의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에 주력
- 호주는 소셜벤처 자금지원을 위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편익채권을 운영
- 일본은 민간주도 임팩트투자 중개지원기관이 다양한 유형의 재정적 지원과 경영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육성

○ 시사점과 정책 방향

- 소셜벤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임팩트투자 시장의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, 임팩트투자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장려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
- 소셜벤처 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임팩트투자 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셜벤처 또는 임팩트 평가모형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

발표 2: 소셜벤처기업 판별가이드 및 범용평가 모형

- 정부와 공공기관, 민간 대기업 및 재단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, 소셜벤처를 판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하면서도 공유된 기준 필요
 -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보유했는지, 그리고 소셜벤처로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, 향후 창출할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 수준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소셜벤처기업 판별 기준과 평가모형 개발을 추진
 -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와 연구진 운영으로 판별가이드 및 평가모형 개발
 - 공청회 개최 후 2019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보도자료 배포
- 소셜벤처기업의 정의
 -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
 - 그러나 현재 국내에 법적 정의와 판별기준은 없는 상황
- 판별기준과 평가모형 설정의 균형점 찾기
 - 정교하고 엄격한 모형은 더 많은 변수 및 데이터를 통해 판별·평가 정확도가 높아져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투입자원 및 노력,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평가 전문인력도 필요
 - 단순하고 융통성 높은 모형은 판별과 평가가 쉬우며, 더 많은 대상 포함이 가능한 반면, 판별·평가의 오류가 증가하고 잘못된 적용 및 악용 우려
-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의 목적과 적용 대상
 - 정부와 공공·민간 부문이 계획하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확대되어 소셜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
 - 법인, 개인기업 등 기업의 형태나 규모, 업력, 업종 등과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
 - 소셜벤처의 판별은 대상기업의 역량이나 사회적·경제적 영향 및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, 소셜벤처의 속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
- 소셜벤처기업 평가모형 목적과 기본 구성, 활용
 - 소셜벤처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 두 가지 측면의 요소들을 평가하여 기업 역량을 측정
 -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및 용자, R&D지원 사업 등에서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, 지원 규모, 지원 조건 등을 설정하는 데 활용
 - 소셜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성 평가에도 활용

토론 정리 및 전문가 코멘트

- 소셜벤처란 용어는 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과 구분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쓰기 시작
 -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부로, 소셜벤처와 임팩트투자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념적 정의가 사용
 -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하면 소셜벤처란 말을 사용한다고도 하고, 사회혁신기업, 임팩트벤처라고 지칭하는 기업도 출현
 -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을 의도적으로 쓰려다 보니 많은 혼란이 있어, 사회적기업이라는 말로 통합해서 쓰였으면 함
 - 해외에서는 영리/비영리에 대해 크게 구분 짓지 않고 있는데, 우리나라도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관점 자체도 좀 더 통합적·총체적이 되었으면 함
- 스스로 소셜벤처라고 정의내리지 않는 회사들도 본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들이 정의되어 있고,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
 - 과거처럼 사업을 통한 의식주 해결만이 목표가 아니고, 사회적 문제 및 결핍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서비스나 제품이 시장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
 -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장해 회사가 소셜벤처인지 아닌지 개념 짓지 않고, 소셜벤처에 '소셜'자를 빼도 대부분 사람이 소셜벤처를 떠올리는 세상이 올 것
 - 소셜벤처인지 단순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지 결정하는 요인은 회사가 소셜벤처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달린 것
 - 최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자주 바뀌는 것도 사회적 문제를 시장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
-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의 발굴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
 -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사업발표회 등을 보면,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화되지 않음
 - 노인문제, 장애인문제 등과 같은 큰 개념이 아닌 노인의 어떤 문제인지 구체화해 제시하고, 그 문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원인은 무엇인지,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여 해결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담아서 설명하는 기업이 거의 없음
 -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평가모형설정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
- 사회적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설명하고 문제를 정의
 - 사회적 가치란 말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, 그 정의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정부 지원뿐 아니라 민간투자를 받기에도 쉬움

- 소셜벤처는 최근 언론이나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승고하고 고차원적인 개념을 가진 시민들의 행동으로 발전
 -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굉장히 빠르고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, 그런 고도성장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시민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
 -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변화 동력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굉장히 높이 평가할 부분
 -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등 이름이 다른 건, 다양한 층의 기업이, 다양한 성격의 기업이 생겨나기 때문으로, 시민사회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생겨나는 활동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, 분화되고, 확장되는 긍정적 발전과정으로 볼 수 있음
 - 앞으로 더 많은 용어가 생겨나겠지만 나쁘게 볼 것은 아님

- 소셜벤처의 가이드라인이 복잡하게 된 이유는 지원 시스템의 악용 방지를 위함
 - 이런 엄격한 모델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잡아내기 위한 것으로, 경제학적 입장에서 관료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것은 의도적
 -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부적절한 사람을 솥아내는 것이 목적으로,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엄격하고 복잡한 평가 기준에 직면하더라도, 의도가 나쁜 사람 보다 상대적으로 수고를 덜 하고 지원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

- 소셜벤처는 시장원리로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지만, 그렇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
 - 소셜벤처는 청년 비중이 대단히 높고 이는 청년들에게도 굉장한 기회이기 때문에, 정부의 소셜벤처 정책도 청년정책의 하나로 실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음



[부록 그림 2] 소셜벤처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